

보도시점 (지 면) 7. 18.(목) 조간
(인터넷) 7. 17.(수) 12:00

‘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’ 개최

- 특구 간 협력으로 혁신성장 막는 규제정비 및 지역 성장기반 마련
- 특구사업자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 기업설명(IR) 및 사업화 전문교육 진행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17일(수)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「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」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*(이하 특구)의 특구사업자, 지자체,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(이하 협력네트워크)를 통해 유사 특구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,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.

* 규제자유특구 제도 :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·전략산업에 대해 실증 특례·임시허가 등을 지원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

이날 중기부는 “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”을 발표하였다.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기부와 지자체·특구 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발굴·추진함으로써 협력네트워크의 실행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. 아울러, 추진계획은 타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·협력을 통해 규제정비는 물론 지역 성장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.

이와 함께 특구의 성과창출 지원과 특구 간 협력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, 사업화 전문교육, 투자 기업설명(IR)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, 자세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 번째, **우수 사례 공유회**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기반을 마련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(리사이클링) 특구와 전남 e-이동수단(모빌리티) 특구의 사례를 공유하였다. 이들 2개 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

로 혁신사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화에 성공하여, 이를 토대로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산업의 협력지구(클러스터)로 발전하고 있다. 이들 특구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, 대규모 투자 및 우수기업 유치, 후속사업 연계, 정부와 지자체 노력 등을 주요 성공요인이라고 밝혔다.

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(리사이클링) 특구	전남 e-이동수단(모빌리티) 특구
▶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유치, 인력 채용 134명 등 ▶एको프로, 포스코케미컬 등 우수기업 유치, 후속사업 연계 등 지역 협력지구(클러스터)로 발전 중	▶초소형 전기차 공장 건립 등 1,128억원 투자 유치, 종료후 113억 규모의 수출 달성 등 ▶e-이동수단(모빌리티) 부품생산 기반 구축 및 후속사업 연계로 176명의 고용창출

두 번째, **사업화 전문교육**에서는 특구 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사업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구 사업자 맞춤형 전문교육을 진행하였다. 정책자금, 수출마케팅 등 정부사업 참여 방법과 함께 인공지능(AI)·챗GPT 등 신기술 활용 전문교육, 특구사업자의 혁신 시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교육도 제공하였다.

세 번째, **투자 기업설명(IR) 및 투자상담회**를 통해 특구사업자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유치를 지원하였다. 특히 투자 기업설명(IR)에서는 도심배출·수소·이동수단(모빌리티)·로봇·생명(바이오) 등 신산업 분야 특구사업자 8개사가 참여하여 지역혁신벤처기금(펀드)과 연계한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. 아울러 투자상담회에서는 특구사업자들의 사업적 가치와 투자전략 수립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상담도 제공하였다.

네 번째, **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 설명회**도 진행하였다. 설명회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간 전략적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,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. 설명회를 통해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간의 연계를 통해 특구사업자가 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일괄지원체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.

중기부 김홍주 규제혁신기획단장은 “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

후속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고 강조하며,

“이번 행사 이후에도 특구사업자가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, 특구사업자를 위한 투자 기업설명(IR) 및 사업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특구혁신기획단 특구지원과	책임자	과 장	유환철 (044-204-7220)
		담당자	사무관	이기택 (044-204-7227)



참고1

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 개요

◆ 33개 규제자유특구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개편방향·우수사례 공유, 경자구역 협업 설명회, 사업화지원 진행

□ 행사 개요

- 행사명칭 :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
- 일시/장소 : '24. 7. 17(수). 13:00 ~ 17:30 / 서울 프레지던트호텔
* 서울 중구 을지로 16 프레지던트호텔 31층(주 행사장)·19층(IR)
- 주최 : 중소벤처기업부
- 주요참석자 :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특구사업자, 지자체 담당자 등 70여명
- 메시지 : 특구간 협력을 통해 특구의 지속 성장방안 마련
- 주요내용 : 1부 협력네트워크 개편방향·우수사례 공유, 경자구역 협업 설명회, 2부 특구 사업자 대상 투자 IR·투자상담회, 특구 사업화 교육

□ 행사 진행(안)

구분	시간	주 행사장(31층)	IR 행사장(19층)
1부	13:00~14:00(60')	■ 협력네트워크 개편 및 우수사례 공유 * 개회(2') → 인사말씀(3' 특구혁신기획단장) → 개편방향 소개(20', 특구지원과) → 우수 특구 사례발표(30') → 기념촬영(5')	
	14:00~14:30(30')	■ 규제특구-경자구역 협업 설명회	
2부	14:30~15:30(60')	■ 특구 사업화 교육 * 중진공 주요 지원사업 설명(20', 중진공) → AI·챗GPT 등 신기술 활용방안(40')	■ 지역혁신벤처펀드 연계 투자 IR * 8개사(기업당 15분 내외)
	15:30~16:30(60')	■ 공공조달 판로지원 교육	
	16:30~17:30(60')		■ 특구기업 투자상담(부스 운영)

참고2

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(요약)

□ 추진배경

- 협력네트워크는 출범 초기 노하우·사례 공유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, 형식적 분과 운영 및 실행역량 부족으로 시너지 창출에 한계
- 추진체계 없는 행사위주 운영, 실증사업이 상이한 산업분과 운영 등으로, 발굴된 제안·사업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사례 부족

□ 주요 내용

- (추진체계 구축) 중기부·KIAT·중진공과 지자체·특구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실증사업이 유사한 산업분과 운영으로 실행 역량 강화



- (민간투자 유치)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및 투자유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전 스کیل업 교육 제공
- (사업역량 강화) 특구사업자의 사업화 과정 중 애로를 겪는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맞춤 자문(컨설팅) 지원
 - 수요조사 및 진단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각적 역량 강화 지원
- (타사업 연계) 특구지원사 외에 중기부·유관기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특구사업자의 역량강화 및 사업화 성공지원 견인
 - 정책자금, 인력, 연수 등 중기부 지원사업 확대 방안 추진
- (타부처 연계)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한 협력모델 제시 및 관계부처 지원사업 활용 컨설팅 추진

참고3

우수특구 사례

□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('19.8.9 ~ '23.8.8)

-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3조 4,500억원 투자 MOU 체결 등 5조 7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유치, 인력 채용 134명 등
- ⇒ 에코프로, GS건설, 포스코케미컬 등 우수기업 유치, 환경부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 연계 등 지역혁신클러스터*로 발전 중
- * 중소기업(소재 추출) → 중견기업(배터리 원료 생산) → 대기업(배터리 생산)

□ 전남 e-모빌리티 특구('19.8.9 ~ '23.8.8)

- 특구 내 초소형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 등 1,128억원의 투자유치 및 특구 종료 후 동남아 시장 113억 규모의 수출 달성 등
- ⇒ e-모빌리티 부품생산 기반 구축 사업 연계, 관련 기업·연구기관 입주 및 176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

□ 주요 성공요인

- ① (규제정비)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,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적시에 규제정비를 통한 사업 근거 마련
- ② (후속사업 연계) 특구사업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부처(산업부, 환경부 등) 다양한 후속 지원사업 연계
- ③ (산업 생태계 조성) 특구 지정을 계기로 대규모 투자유치, 공장 설립, 연구기관 및 우수기업 유치
- ④ (지자체 지원) 특구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지원조례 제정 등 적극 지원